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⑤

이타의 자비심이 근본마음

짧은 들숨 긴 날숨 습관되게 정진

자비심(慈悲心)이란 일체 중생이 나와 한 몸인 그런 사랑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공감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환희 속에서 삶의 존엄성을 공감하면서 숨의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삶의 가치가 새롭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인 것이다. 안반수의를 통해 얻은 자비심은 인간 모두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근본 마음이며, 나 이외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타(利他)의 마음이다. 불교에서의 이와 같은 궁극의 세계가 호흡이라는 생명 현상 속에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다.

청정한 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와 나의 것이 되고,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들은 호흡을 통하여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호흡을 중요시하는데, 이러한 수식(數息)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죄에 이르는 것이요, 둘째는 행이 공교롭지 않은 것이요, 셋째는 정진하지 않는 것이다. 들숨은 짧고 날숨은 길고, 생사에 따르는 바가 없는 것을 도의 마음으로 삼으며,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을 죄로 삼는다. 죄는 밖에 있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세 가지 원인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호흡이란 내적으로 건강과 정신상태에 따라서 좌우될 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첫째의 원인은 호흡을 방해하는 장애가 닥쳐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잡념이 생기거나 불안할 때는 호흡이 흐트러진다. 둘째 호흡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이다. 셋째는 바르게 호흡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호흡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여기서는 생각이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혼란하면 호흡이 흩어진다. 그 원인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있다. 생각이 일어나서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서 정신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흡의 장애가 죄이다. 죄는 마음 속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게 된다.

호흡의 방법이 공교롭지 않다는 것은 들숨이 짧고 날숨이 길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을 취해야만 복압력이 생겨 자율신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게 된다. 짧은 들숨과 긴 날숨을 습관화시킬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호흡을 위해서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이 실행되려면 조건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진(精進)이다. 이상의 조건들이 호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도 적용된다.

들어오는 숨이 길어질 때가 있는데, 이는 마음이 수식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을 경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사물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경우, 수를 세다가 까먹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숨을 세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호흡은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들어오는 숨은 짧고 급하게 들어오는 것이어야 하며, 나가는 숨은 길고도 충분하면 들어오는 숨은 자연히 그 반동에 의해서 급하고 짧아지게 된다. 이때 마음이 절대 숨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긴 날숨은 횡경막의 압축력을 주어 모든 장기의 정맥혈을 심장으로 유입시키고, 숨이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많은 산소를 내포한 동맥혈을 여러 장기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호흡은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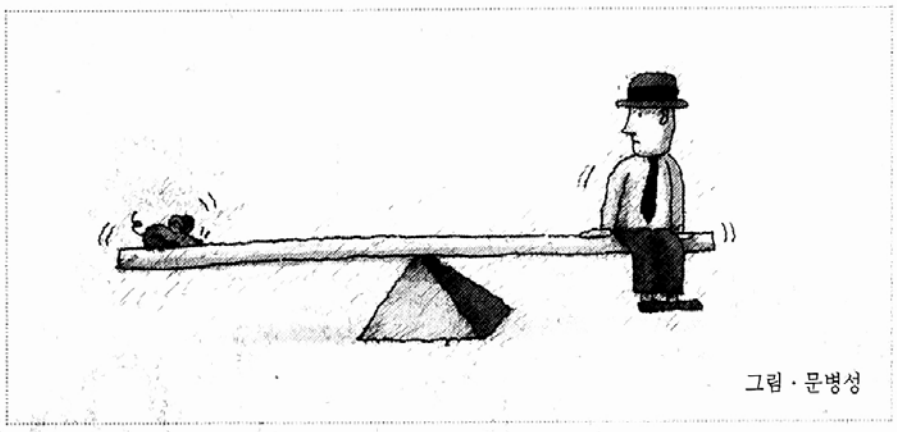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하늘 아래 우월한 생명 없다

불교와 과학 〈20〉

우주 한 모퉁이 인간

과학 진화론 이후 인간 위주 세계관 변화

불교 '천상천하 유아독존' 생명 평등 주창

산탄총으로 새를 쏘는 경우, 새를 맞추어 떨어뜨리는 총의 발사행위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 행위이다. 그러나 산탄총이 발사된 후 산탄들(많은 총알들)이 새를 맞추게 된다면 그 많은 산탄 총알 중에서 어느 총알이 새를 맞출지는 전적으로 우연에 속한다. 이 이야기는 목적과 관계없는 우연과 목적에 부합하는 필연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이다. 우연과 필연의 이러한 연결성은 특히 생물의 진화과정에 잘 드러나고 있다.

새의 뼈 속이 성글게 된 진화과정은 먼 과거 역사에 한 육상 생명체가 하늘을 날게 되는 단편으로 보아서는 우연에 속한다. 그러나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뼈가 가벼워야한다는 생리학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진화과정은 필연에 속한다. 진화는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진화과정에 놓여 있는 생명체는 강 위로 흘러가는 미아의 바구니와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3톤 짜리 체중을 갖는 새로 진화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체의 진화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 우연이나 행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1859년 다윈이 불과 2천50부만 출판한 책인 〈자연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은 유럽의 지적 풍토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단지 생물학적 혁명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플라톤 사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축 위에 서 있던 유럽의 사유체계에 혁명적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다윈 이전의 서구 인간관의 기본은 기독교적 인간관으로서, 인간은 신의 모방체로서 다른 동식물과 달리 매우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목적론적 세계관을 갖는 기독교의 인간관과 달리 진화론의 인간관은 우연적이고 많은 생명체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무중심의 태도를 지닌다.

인간의 유전자는 침팬지의 유전자와 비교해서 98%는 같고 나머지 2%만 다를 뿐이다.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고 해서 최고의 영장류 혹은 다른 생명체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특수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쥐는 초음파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낙타는 물을 장기간 섭취하지 않고도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생명체이며, 박테리아 역시 외부환경에 강한 증식력을 갖는 특수한 존재이기도 하다.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 화학자 자끄 모노(Jacques Monod)는 인간을 "우주 한 모퉁이를 떠도는 집시"라고 표현했다. 결국 인간은 무수히 많은 생명종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지위가 보잘 것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생명종, 모든 생명개체 하나 하나가 나름대로의 존재의 이유를 지닌다는 뜻이다. 인간 유전자의 2%만이 침팬지의 것과 다르고, 진짜 하등하다고 생각한 초파리의 유전자의 숫자도 인간 유전자 수의 1/3 정도나 된다는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인간과 침팬지의 생물학적 차이가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2% 정도일지라면, 나머지 인간과 침팬지가 공유하는 98%라는 생명체 일반의 신비로움은 더욱 더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파리의 유전자의 수가 인간 유전자의 1/3정도라면 그 나머지 숫자인 30%가 갖는 생명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보고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지니는 특수한 지위를 따지기 전에 인간과 초파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 일반이 갖는 신비로운 생명성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최근 발표한 게놈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로서 되새겨져야 한다.

다윈 이전에는 인간만이 생명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이런 목적론적 사유를 정면으로 붕괴시켰다. 그래서 필연적인 방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우연의 역사를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였다. 진화론과 같은 생물학의 이론은 물론 아니지만 우연으로 나타나는 필연의 세계를 삶의 전체성과 연관하여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기의 세계이다. 연기의 세계는 삼세간(三世間)의 상호장엄(相互莊嚴)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삼세간 중에서 생명체의 세계인 중생세간 사이의 생명체들은 어느 무엇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월하거나 비속한 것은 하나도 없는 평등의 존재자들이다. 나아가 깨달음의 세계인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 생명체의 세계인 중생세간 그리고 산천초목의 세계인 기세간(器世間)이 서로 평등한 지위를 갖고 서로의 존재의미를 서로에게 부여해주는 관계이기도 하다. 진화론이 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로 국한하지 않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인간의 겸허한 자세를 요청하는 새로운 과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세계최대 바미얀 대불 포화속에 사라질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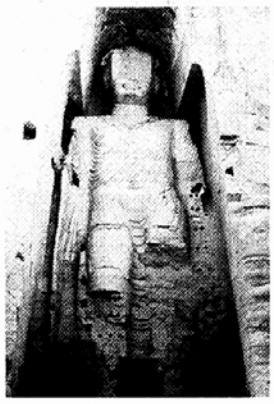
지구촌 불교 / 아프간 불상 파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바미얀 대불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중부 지역에 있는 간다라 양식의 불상들이 파괴되고 있다.

AFP통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집권 세력인 탈레반의 쿠드라툴라 자말 정보문화관장은 "불상 파괴 작업이 1일 오전부터 시작돼 진행중"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상 파괴를 반대해 온 유네스코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 불교권 국가들의 거센 반반이 예상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탈레반은 불상 파괴를 위해 탱크와 로켓포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은 고대 불상군(群) 등 문화재가 밀집해 있는 수도 카불에서 서쪽으로 150킬로미터 떨어진 아프가니스탄 중부 바미얀 지역이다.



◇바미얀대불.

이외에도 6000여 개의 불교 문화재들이 소장돼 있는 카불 박물관을 비롯해 가즈니, 헤라트, 잘랄라바드, 칸다하르 등지의 박물관에 있는 고대 불상들도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고대 불상군 중에는 높이

탈레반 "모든 불상은 우상" 파괴 명령

2세기 귀중한 고대 불상군 소멸 우려

53미터인 세계 최대의 사암(砂巖) 마애석불(일명 바미얀 대불)과 높이 37미터의 대형 불상을 포함, 최고 서기 2세기경에 만들어진 귀중한 불교 문화재가 포함돼 있어, 그 심각성을 더했다.

전형적인 간다라 불상을 거대하게 확대시켜 놓은 듯한 바미얀 대불은 불교미술사상 최초의 거대한 예배상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불상으로, 중국의 운강이나 용문 석굴의 대불, 일본 동대사의 청동대불에 많은 영향을 준 귀중한 불교문화재다.

또한 대불이 조각된 절벽에는 2킬로미터에 걸쳐 승방과 불당으로 사용됐던 굴들이 벌집처럼 뚫려있는데, 이 지역을 방문한 현장스님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대불과 석굴은 도금으로 빛나고 보석이 찬란했다"고 기록했다.

탈레반이 국제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불상 파괴를 강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파키스탄의 이슬람 학자인 이스라르 아흐메드 박사는 "탈레반이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교시를 교조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상 파괴에 앞서 탈레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는 지난달 26일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모든 불상을 파괴하라"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불상파괴 행위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에 복구 불능의 해를 끼치는 재앙"이라며 "아프간의 불상, 특히 마애석불의 손실은 인간애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고고학계 역시 "그리스의 헬레니즘 양식이 아시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동 지역에 성행한 간다라 미술 양식은 세계사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화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똑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250,000원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흑색 가죽당계표지 · 금박 · 95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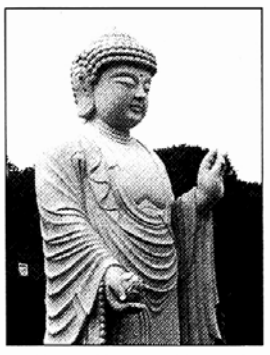
또, 직접 뵙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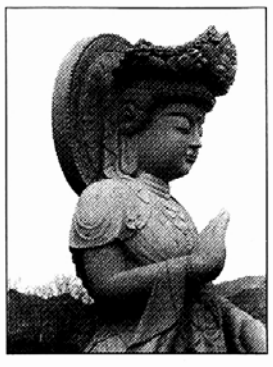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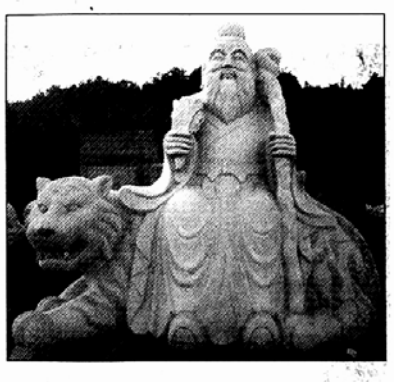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